오대산서 나를 돌아보다

10월 8~10일, 오대산문화 축전
진신사리 이운식·삼보일배 회향


10월 8일 월정사 오대산문화축전에서 봉행된 수계법회.

천년의 숲 오대산에서 불교의 지혜와 현대 문화가 만나 자신을 돌아보고 세상과 소통하는 축제의 장이 펼쳐졌다.

조계종 제4교구본사 월정사(주지 인광 스님)는 10월 8일부터 10일까지 '2026 오대산문화축전'을 개최했다. '나를 묻다, 세상을 잇다'를 주제로 열린 이번 축전은 10월 8일 부처님 진신사리 이운식으로 막을 올렸다.

주지 인광 스님은 별도의 진산식 대신 문화축전 인사를 통해 "가풍 있는 화엄공동체의 수행과 전법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수행공동체인 4교구의 원융무애한 종풍 진작을 위해 승가화합을 우선하겠다"고 밝혔다.

수계법회에는 교구 35개 말사에서 1000여 명이 동참했다. 참가자들은 계를 받아 지키겠다는 서원을 세우며 자신을 돌아보고 이웃을 위한 보살행을 다짐했다.

이와 함께 탄허 대종사의 선서 정신을 기리는 전국휘호대회와 탑돌이 한마당도 열려 불교의 수행 전통과 문화예술이 어우러졌다.

'마음그라운드'에서는 싱잉볼 명상과 좌선, 전나무숲 삼림욕, 걷기 명상, 차 명상과 다도, 요가 명상 등이 진행됐다. 참가자들은 오대산 숲길을 걸으며 호흡을 가다듬고 일상의 번잡함을 내려놓으며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9일에는 '화엄선불장-부처의 하루, 우리의 하루'를 통해 불교의 지혜를 오늘의 삶과 연결하는 시간이 마련됐다. 불교합창제와 뮤지컬 갈라 콘서트도 이어져 축제에 음악적 감동을 더했다.

마지막 날에는 부도헌다례와 사찰음식 프로그램 '구름 위의 식탁', 월드뮤직 콘서트 등이 마련됐다.

축전의 대미는 월정사 금강경봉찬기도회(회장 자현 스님)가 주관한 삼보일배와 부처님 진신사리 이운이 장식했다. 5000여 명의 참가자들은 진신사리를 모신 행렬을 따라 걸으며 〈금강경〉의 가르침을 되새기고 평화와 화합을 발원했다. **이동격 강원지사장**

직지사, 사명 대사 호국정신 계승

10월 10일, 천년 수향식·헌향재
산사음악회로 화합의 장 펼쳐져


10월 10일 직자사 사명당 문화대제전에서 열린 '천년 수향식'.

조계종 제8교구본사 직지사(주지 장명 스님)가 개산 1608주년을 맞아 호국성사 사명 대사의 정신을 기리고 전통 불교문화를 계승하는 문화대제전을 봉행했다. 개산의 역사를 되짚는 한편, 전통 향례와 호국불교의 정신을 현대적으로 계승하고 지역사회와 소통하는 불교문화의 장이 펼쳐졌다.

직지사는 10월 10일 대웅전과 사명각, 만덕전 일원에서 '천년 수향식'과 '호국성사 사명당 문화대제전 헌공다례'를 봉행했다.

행사의 시작을 알린 천년 수향식은 청수 의식과 수향화, 〈삼국유사〉 찬문을 읊는 헌사 순으로 진행됐다. 이어 전통 가마에 천년의 향을 담아 사명각으로 옮기는 이운 행렬이 펼쳐졌다.

사명각 앞 광장에서 열린 사명당 문화대제전 헌공다례는 임진왜란 당시 승군을 이끌고 국난 극복에 앞장선 사명 대사의 호국정신을 기리는 자리로 마련됐다. 사명 대사가 선조 임금에게 올린 상소문을 대독하는 순서도 진행돼 나라의 위기 앞에서 백성을 구하고자 했던 스님의 원력과 실천을 되새겼다.

주지 장명 스님은 "오늘의 대한민국은 나라와 백성을 위해 헌신한 선조들의 희생 덕분"이라며 "백성을 구하고 평화를 이루고자 했던 사명 대사의 용기와 지혜, 호국정신을 깊이 새겨야 한다"고 말했다.

사명 대사는 임진왜란 당시 승군을 이끌고 평양성 수복에 공헌했으며, 전쟁 이후 일본으로 건너가 포로로 끌려간 동포들을 귀환시키는 등 호국 안민의 실천에 앞장섰다. 사명당 문화대제전은 전란 속에서도 백성을 지키고 평화를 이루고자 했던 사명 대사의 정신을 오늘날에 계승한다는 의미를 담아 열리고 있다.

오후에는 만덕전 특설무대에서 산사음악회가 열렸다. 가수 송창식, 조영남, 한영애 등 대중가수와 지역 합창단이 무대에 올라 지역민과 불자들이 함께 어우러지는 화합의 장을 선보였다. **김선행 대구경북지사장**

동화사 승시 '화제 만발'

10월 9~11일, 제16회 승시 개최
미디어파사드·단기출가 등 '화제'


동화사는 10월 9~11일 영산재와 승시, 선명상 체험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시민과 불자들을 맞이했다.

스님들의 옛 장터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승시가 팔공산 동화사 일원에서 열렸다.

조계종 제9교구본사 동화사(주지 선광 스님)가 주최하고 팔공산 승시 축제 봉행위원회가 주관한 '제16회 팔공산 산중전통장터 승시'가 10월 9일부터 11일까지 동화사 일원에서 진행됐다.

축제는 영산회상 수륙대재로 막을 올렸다. 동화문 주차장에는 과거 스님들의 장터를 재현한 승시 장터가 마련돼 전통문화의 정취를 전했다.

통일대전 법당에서는 단기출가 체험 프로그램인 '잠깐, 출가했습니다'와 싱잉볼 명상 체험이 운영됐다. 일상에서 벗어나 수행자의 삶과 명상을 경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시민들에게 몸과 마음을 돌아보는 시간을 선사했다.

해가 진 뒤에는 미디어파사드가 화려한 빛으로 산사의 밤을 수놓았으며, 한복 DJ파티에서는 전통 의상과 전자음악이 어우러졌다.

주지 선광 스님은 "승시가 전하는 나눔의 지혜, 선명상이 건네는 비움의 평화가 우리 모두의 마음에 밝은 연등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한다"며 "사흘간 펼쳐지는 이번 축제에서 일상의 짐을 내려놓고 밝은 치유와 환희심을 가득 채우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올해 승시는 조계종 총무원과 함께하는 선명상 축제를 연계해 전통문화 체험을 넘어 마음의 평안을 찾는 치유의 장으로도 꾸며졌다. 참가자들은 숲속 걷기 명상과 108배 체험 등을 통해 바쁜 일상에서 잠시 벗어나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다.

축제 마지막 날인 10월 11일에는 승가 씨름대회와 승가 법고대전, 사찰음식 시연 등 불교 전통과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이어졌다. **김선행 대구경북지사장**

지리산 물들인 천년 화엄의 빛

10월 9~11일, 제22회 화엄문화제
국보 괘불재·추모재로 전통 계승


10월 9일부터 11일까지 열린 '2026 제22회 화엄문화제'에서 괘불재가 봉행되고 있다.

조계종 제19교구본사 화엄사(주지 우석 스님)는 10월 9일부터 11일까지 '2026 제22회 화엄문화제'를 개최했다. 올해는 '바람 속에 등불을 밝혀라'를 주제로 불확실한 시대에도 각자의 마음에 희망의 등불을 밝히고, 그 빛을 이웃과 세상으로 확산하자는 의미를 담았다.

행사는 한국전쟁 당시 화엄사를 지켜낸 고(故) 차일혁 경무관의 추모재를 비롯해 국보 괘불재, 구례향제줄풍류, 요가대회, 화엄음악제, 라인댄스, 어머니의 길 걷기대회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9일에는 국보 '화엄사 영산회괘불탱'을 모시는 괘불재가 봉행됐다. 괘불재에는 화엄사 사부대중과 김민석 국무총리 등이 참석해 나라의 평안과 모든 생명의 행복을 발원했다.

괘불재에 이어 구례향제줄풍류 공연이 펼쳐져 전통음악의 멋과 흥을 선사했다.

10일에는 제6회 지리산대화엄사 요가대회가 열렸다.

문화제의 백미인 '제22회 화엄음악제'는 보제루 앞 특설무대에서 펼쳐졌다. 음악제는 불교의 전통의식인 육법공양을 비롯해 생황과 정가, 현대무용, 대중음악이 어우러진 무대로 꾸며졌다.

11일에는 제3회 구례군 라인댄스 동호인대회가 열려 지역 주민들이 축제의 주인공으로 나섰다. 이어 제6회 어머니의 길 걷기대회가 '함께 걷고, 함께 밝히다'를 슬로건으로 진행됐다.

주지 우석 스님은 "화엄문화제는 천년고찰 화엄사가 간직한 불교문화유산과 전통을 오늘의 문화예술로 이어가는 뜻깊은 자리"라며 "전통과 현대, 세대와 지역을 넘어 모두가 하나 되는 이번 축제를 통해 서로를 이해하고 화합하며, 각자의 마음에 밝힌 희망의 등불이 세상을 따뜻하게 비추길 바란다"고 말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현대불교신문 창간 32주년을 축하합니다

효찰대본산 조계종 제2교구본사

용 주 사

주지 성 효

사부대중 일동



(18347)경기도 화성시 용주로136(송산동)
(031)234-0040/팩스(031)234-2818

현대불교신문 창간 32주년을 축하합니다


신축 템플스테이체험관 투시도(안)

벽 암 지 홍

법회 및 기도 안내
일요법회 매주(일)10:30
호법법회 매월 첫째주(수) 10:30
초하루신중기도 매월 음력 초하루 10:30
지장재일기도 매월 음력 18일 10:30
다라니기도 매월 넷째주(금) 19:00

유관기관 안내
행원 사회적협동조합
보리수 지역아동센터
시립 철산종합사회복지관
시립 하안누리어린이집
시립 새론어린이집

템플스테이 지정사찰
YouTube 금강정사

대한불교조계종 금강정사
주소 경기도 광명시 설월로58(소하동) | www.sejon.org
전화 02)898-8200 | 팩스 02)898-1844